

## 치료가 필요한 술병(病)은?

(술의 양면성)

당나라의 시인 두보(杜甫)는 사람의 마음을 크게 하는 것은 오직 술뿐이라 하였다.

풍류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술을 마셔도 말술(斗酒)을 마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두주불사(斗酒不辭)하는 사람을 열혈남아(熱血男兒)의 기개로 여겨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시각에서도 마시는 음료로서의 알코올, 즉 에탄올은 비록 의학적으로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착각과 기억의 일탈(逸脫)을 유발하는 습관성 약물로 분류하는 물질이지만, 그 '허용된 약물'의 사용을 꼭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아야만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어느 회식 자리치고 소주나 맥주 등 술을 마시지 않는 곳이 없다시피 하는 것이 현실인데다가, 사실상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서먹하지 않은 분위기로 유도하는 매개체의 역할로서 오랫동안 그 수장(首長)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술이기 때문이다. 술은 의학적으로는 중독을 유발하는 습관성 약물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인간관계의 교량 역할을 하는 독특한 영역의 음식물이다.

최근 몇 년간 간염 예방을 위해 잔 들리지 않기,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억지로 술 권하지 않기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하여 술에 대한 일반인의 관념이 많이 바뀌어 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술자리에서 권하는 잔을 거절하거나 몰래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꽤썸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술꾼도 많다.

그런가 하면 또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습관처럼 굳어 버린 '위하여!', '원 샷'의 풍습은 -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帝國主義) 또는 전체주의(全體主義)를 연상케 한다 - 일면 일체감을 조성하는 좋은 점이 있다고는 하나,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쉽게 취하게 하는 나쁜 점이 있다.

국민 일인당 소비하는 알코올의 양이 세계에서 몇 제 안가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한국인들은 그 통계에 걸맞게 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다만 사회가 용납하고 직장에서도 이해하고 가족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마치 문제가 없는 양 행세하고 있을 뿐이다.

범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도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 단속에 걸려들고 있으며, 해가 바뀌어도 그 숫자가 줄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남녀평등, 여권(女權)신장의 물결을 타고 터놓고 마시는 여성 음주자도 폭증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 한다.

알코올 섭취는 이렇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만연된 문화의 일부라고 할 때,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알코올 남용 또는 알코올 의존증의 범주에 해당되는가? 여기에 대해 또한 많은 논란이 있다.

거의 매일같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때로 ‘필름 끊김’이 있으며, 취중에 자신을 비난하는 말에 분기탱천하여 술상을 뒤집어엎고 주먹질을 해서 이튿날은 사과해야만 하는 사람에게 “직장에 결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술 문제에 관한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직장에서는 샌님이라 불릴 정도로 말이 없고, 행여 남에게 피해를 줄까 노심초사하여 함부로 말도 못 하고 순한 양처럼 사는 사람이 술만 마셨다 하면 ‘헐크’로 변해서 위아래 없이 마구잡이로 행동한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술집에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 취중에 ‘화끈한 계약’을 하고 파격적인 대금 지불을 약속한 사람이 이튿날 “기억이 안 난다”라고 난처해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취급하게 될까?

이런 일이 어쩌다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다면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자주,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면 그 사람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가차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알코올 중독자로 판단해야 한다.